

A vibrant yellow ribbon is draped across a white background, forming several loops and curves. The lighting is soft, creating gentle shadows and highlights on the fabric's surface.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참여연대
2014-2015
활동보고서



2015. 4.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간사들이 4일에 걸쳐 4160개의 노란리본을 묶었습니다.



4160개의 리본이 모여 하나의 큰 리본이 되었습니다.
"이 리본을 보며 세월호 사고를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



2015.04.18. 참여연대 회원들이 세월호 침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별법을 훼손한 대통령령 폐기를 외치며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인사말

믿음직한 발구름판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이 참 더디게도 변하네요. 특히 최근 수 년 동안 그걸 더 실감합니다.

무언가 괄목할 성취가 있었다고 내세울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더 따뜻한 가슴으로, 보다 친근하고 쓸모 있게 스며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 기록입니다.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신기록을 향해 질주하는 대표선수로 기억되기보다,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직한 발구름판으로 기억되도록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다움이 훼손되고 위협받는 현장에,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들 곁에 참여연대가 그림자처럼 함께 할 수 있기를, 시민이 위임한 주권이 소수를 위한 억압의 도구로 변질되는 한밤의 어둠 속에서도 참여연대의 잠들지 않는 눈이 매처럼 반짝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고장 난 세상을 고치는 일에 누구든지 요긴하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잘 버려진 연장으로, 공기空氣같은 공기公器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는 청년세대에 눈을 돌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 스스로의 실험을 촉진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가칭) '청년 참여연대'의 출범도 그 일환입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이 참여연대에도 새로운 자극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를 견실하게 키워 오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다짐도 저런 실험도 가능한 것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재정자립을 지켜온 것에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은 협력과 연대의 보루가 되도록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2015. 9.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참여연대 2014 - 2015 활동보고서

목차

05	인사말	
08	사람들	회원 임원 / 전문가 상근자 자원활동가
20	시민의 놀이터	카페통인 회원행사 / 문화행사 아카데미느티나무 청년 / 청소년 / 탐방
32	시민의 파수꾼 - 2014-2015 활동보고	연혁 사진으로 보는 2014-2015 특별보고 사회경제 분야 권력감시 분야 평화국제 분야 연구 분야 미디어홍보 분야
62	성과와 기록	주요성과 입법 / 소송·공익신고 정책자료 / 공론화 활동
72	성찰과 비전	20주년 선언문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
76	살림과 원칙	
78	Contact	

일러두기

본 활동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활동 연장선에 있는 경우 2015년 7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회/회원 15,361



참여연대 회원 현황 (2015년 6월30일 기준)

회원가입 정보 기준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공식 SNS 팔로워 (2015. 7월 기준)

63,028

회원모니터단
2기 500 / 3기 500
1,000



탐방객
내국인 815 / 외국인 212
1,027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가자
1,653

● 기구표 상 조직도
 온라인
 ~~~~~ 오프라인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참여연대가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인을 회원 송년회 때 함께 가자고 했어요. 직접 회원가입 권유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행사를 다녀와서 자연스럽게 가입했네요. 특히 땅콩회항관련 고발건을 보면서 참여연대가 참 많은 것을 한다고 느끼고,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미숙 회원 2008. 4. 7 가입

비굴의 시대에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기성세대가 되기 위해 가입합니다.

장수환 회원 2014. 12. 28 가입



참여연대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참여연대에 가입했어요.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여연대에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한 친구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후배인데요, 본인의 활동분야인 국제개발협력 말고도 사회에 더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기에 참여연대를 추천했습니다.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지고,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인 회원 2013. 11. 9 가입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의를 종종 들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고민이 잘 묻어난 커리큘럼이라 잘 듣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배운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나누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사회가 더욱 튼튼해지겠죠. 저 또한 후원금도 늘려나가는 등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선생님들에게 전하면서 회원가입을 권유했는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으로 이어졌어요.

황윤신 회원 2003. 9. 27 가입



참여연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시사통' 팟캐스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 권유를 듣고 회원가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특히, 안진걸 처장님이 나오셔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혹 했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경숙 회원 2014. 11. 17 가입

저는 참여사회소식지를 챙겨보려고 노력해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회비 증액을 생각했었는데, 지난 호에 아는 이가 증액회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선의의 경쟁이죠!(웃음) 참여연대 활동은 박진감이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기에 감동을 받아요. 제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보수적인 세대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드 사람들이 사회에 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후원단체가 많아 회비를 더 증액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에요. 참여연대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정미영 회원 2013. 6. 17 가입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9기 인턴 출신입니다. 그 동안 학생이었는데, 얼마 전 취직을 해서 그 동안 많이 내지 못한 회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굵고 길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볼 때 마다 힘이 쭉 빠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연대하는 참여연대가 대단해 보여요. 그와 동시에 언젠가 지쳐버리면 어떡하나 노파심도 듭니다. 더 힘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후원 많이 하고, 회원 추천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멀리서나마 완전 응원합니다!

김지혜 회원 2013. 1. 16 가입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러 간 남편이 영화를 보고서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견제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도 참여연대 회원이지만 남편 또한 참여연대가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굳건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열심히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회원이 되었네요.

신영욱 회원 2012. 8. 12 가입

사회복지사로 일한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로 일하면서 복지 이슈라던가 사회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기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잡지를 우연히 알게 됐고, 사회복지 이슈를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서혜민 회원 2014. 10. 15 가입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마음만 앞서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늘 아쉬웠는데요. 참여연대가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감시를 잘해왔고, 커피 값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회비 증액을 했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통제력을 잃게 되면, 광주항쟁 때처럼 처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력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참여연대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진영 회원 2004. 1. 12 가입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는 몰랐어요. 참여연대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은 금액이지만 뜻을 같이 하고 싶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김지현 회원 2014. 8. 12 가입



학교과제로 참여연대 방문을 했었는데, 그 때 시민참여팀 간사님이 '시민의 힘'을 강조하셨어요. 시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정기적으로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계기가 되었고,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김지현 회원 2014. 5. 11 가입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에 응원을 보내며, 작은 목소리도 함께 한다면 더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며 참여 합니다.

이은숙 회원 2015. 6. 12 가입

제가 참여연대 회원이 된지는 10년도 넘었지만, 지금까지 회원을 가입 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바느질하는 아줌마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참여연대 자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뿌듯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취업준비생인 큰 딸이 취직하면 참여연대 가입하겠다고 해서 또 한명의 신입회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희경 회원 2001. 1. 5 가입



##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2만 회원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보통사람들, 바로 회원입니다. 회원은 참여연대 활동의 원천입니다. 참여연대가 있어야 할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입니다. 참여연대가 독립적으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자립을 이룬 시민단체,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범사례이지요. 참여연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립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고, 회비 비중(2014년 총 수입 중 72.3%)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회원 1만 5천 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만 1,458명의 시민들이 새로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드디어 1만 5천 회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2018년까지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회원확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원의 힘을 믿고 힘찬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 생각보다 가까운 참여연대

### 참여연대 식구가 되신 회원님, 반갑습니다!

- 가입 2주 내 - 감사전화를 드립니다
- 가입 1달 내 - 감사카드와 함께 참여연대 안내 책자가 발송됩니다
- 매월 참여사회가 발송됩니다
- 한결같이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들께, 가입 1년, 10년, 20년이 되면 작은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다양한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 회원 행사\_ 3월 정기총회, 9월 창립기념행사, 10월 가을여행(회원캠프), 12월 송년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요.
- 회원월례모임\_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 카페통인, 갤러리 등에서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려요.
- 지역회원 만남의 날\_ 상하반기 각각 4회씩 지역 회원들을 찾아갑니다.
- 이슈별 캠페인 참여\_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대중집회 등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아카데미스튜디오 강좌\_ 연간 5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됩니다. 회원은 30%할인!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매주 찾아갑니다.
- 참여연대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와 친구 맺기\_ 참여연대 활동과 행사, 참여연대 사람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15. 5.11 여성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회원들

▼ 2014. 8.23 제3차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분과 모임



##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운 회원모임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똑하고 얌전한 시대에 세상을 고민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니 못난 놈들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회원들은 함께 산을 오르고, 삶의 현장에서 노래로 응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기 위해 그들을 사진에 담아 알리고, 그들의 외침을 몸에 두르고 달렸습니다. 회원들간의 소통과 연대는 지역 회원모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        |                                    |                                          |
|--------|------------------------------------|------------------------------------------|
| 산사랑    | cafe.daum.net/ilovesanorg          | 연 50회 이상 주말 산행 진행                        |
| 참종다    | www.chamjota.com                   | 오픈하우스, 회원송년회 등 참여연대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집회에서 공연  |
| 청년마을   | youngvillage.cyworld.com           | 허세욱 회원 추모식 참여, 프로그램 '이야기가 있는 다큐' 기획 및 진행 |
| 참여현상소  | cafe.daum.net/pspdfilm             | 오픈하우스 등 참여연대 행사 촬영                       |
| 마라톤모임  | cafe.daum.net/pspdmrathon          | 여성·소아암 환우돕기 마라톤 등 다수 마라톤대회 출전            |
| 지역회원모임 | 광주전남회원모임, 대전충청회원모임 등 지역 회원간의 교류 진행 |                                          |

\* 참여연대 회원전용 온라인 공간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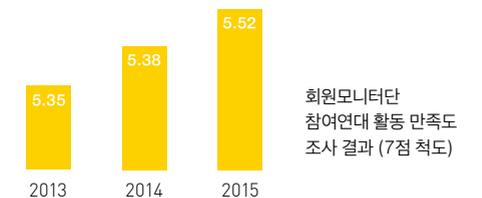
##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 회원 중심의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활동과 운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는 현재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80% 이상을 임원이 아닌 회원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장단, 사무처장단 등 당연직 이외에, 집행부나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40%)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출된 회원들(40%)로 구성되며,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03명의 운영위원들은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직전에 개최하는 공청회,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 500인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수렴하는 통로로 회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의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별 비중을 반영하여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발합니다. 2011년 처음 구성되었던 회원모니터단이 2015년 3기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구성된 3기 모니터단은 설문 응답률이 85%(2015년 6월 조사)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피한 우리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갈구하는 대안사회의 실현과 성평등이  
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종종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노년이 지척인데 아직도 고쳐야 할 것이 수도룩한  
미완의 삶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사에서 우연의 작용을 인정합니다.”

김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상생활을 하는 집을 떠나는 것만을 출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헛된 꿈을 꾸며 이기적 욕망이 질주하는 트랙의  
출발점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법인 스님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놉(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웁니다.”

정강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참여연대 든든한 버팀목 - 임원/전문가

### ◀ 공동대표 4인

매월 <참여사회> 여는글로 회원들과 만나는 분들입니다.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시도 때도 없이 기자회견, 집회, 회원행사 등에 참석하지만, 매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늘 상근자들이 힘들까 걱정 하십니다.

\* 이석태 공동대표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 2014. 11. 26. 공동대표 직을 사임했습니다.

### • 집행위원회 35인

참여연대의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위원회에는 공동대표와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사무처장단,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입장을 결정합니다.

|            |                                                                                                                        |
|------------|------------------------------------------------------------------------------------------------------------------------|
| 집행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
|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김경률(회계사), 김성진(변호사), 박주민(변호사)                                                                                           |
| 권력감시 분야    |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br>박홍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교수)                          |
| 사회경제 분야    |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인하대 교수) 김성진(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이현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br>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교수) |
| 평화국제 분야    |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인하대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 부설기관       |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 교수)<br>주은경(아카데미스티나무 운영위원장)                                                   |

### • 실행위원,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230명의 전문가

참여연대의 11개 활동기구와 3개의 부설기구에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작가, 여론 분석가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상근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기자회견도 이들의 몫입니다.

### • 운영위원회 103인

참여연대 임원은 전문가 임원과 더불어 회원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현재 103명의 운영위원 중 85명이 회원모임 대표 등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진영중(성공회대 교수), 하태훈(고려대 교수)  
운영위부위원장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이현욱(변호사), 주은경(아카데미스티나무 운영위원장)

## 우리가 뛰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면 못할 것이 없다! - 상근활동가

참여연대 활동의 중심에는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는 상근자들이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꼼꼼한 감시자이자 현장에서 행동하는 조직가이기도 합니다. 2015년 6월 현재 사무처 상근활동가는 사무처장 1명과 협동사무처장 3명 그리고 52명의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간사들은 활동부서 6개 팀과 운영부서 4개 팀에 소속되어 전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를 집행하며,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등 참여연대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1년의 역사만큼 상근활동가들의 구성도 21년차 간사부터 갓 들어온 신입간사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의 협동과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토론했는 자리로서 상근자 전체회의를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획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신선한 활력소! 신입간사들이 앞으로 참여연대 주축으로 커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상근활동가** 2015. 8월 현재

- 사무처장 이태호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박정은 안진걸
- 아카데미스티나무 운영위원장 주은경
- 시민감시1팀 이지현 김은영 박성은 아선미
- 시민감시2팀 이은미 김선휴 신동화 이지은 유동림
- 평화국제팀 이미현 백가윤 황수영 이영아
- 경제노동팀 장홍배 김경희 김은정 최재혁
- 민생팀 최인숙 심현덕 홍정훈
- 복지조세팀 김남희 김잔디 신원기 이경민
- 시민참여팀 천용소 김주호 신미지 원동욱 이승희 이정민 이조은 정세운
- 운영기획팀 김현정 신기대 오유진 이지은 차은하
- 정책기획팀 이재근 김태일 이기찬 장정욱
- 미디어홍보팀 이계정 김다혜 이삿별 이선희 이영미
- 장기유급휴직 및 육아휴직  
김승환 김희순 박효주 이진선 장동연 전보임



## 숨은 조력자,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상근활동가들과 손발을 맞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할 일이 쌓여가는 참여연대에 꼭 필요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일흔을 넘은 어르신까지, 학생,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 뒤에는 굳이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함께 해주신 자원활동가들의 땀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자원활동가 112명의 활약** 2014.1 - 2015.6 / 중복 제외

- 시민참여팀 안내데스크, 카페지기, 우편발송, 행사 진행 실무 등 25명
- 아카데미스티나무 강좌 준비, 정리 및 후기 작성 29명
-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주요활동 기록 정리, 연구기관 조사 등 5명
- 운영기획팀 회원 미납안내 전화, 반송 우편 주소확인 등 6명
- 의정감시센터 열려라국회 DB입력, 관련 자료조사 6명
- 사회복지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언론동향 조사 4명
- 미디어홍보팀 영상촬영 및 편집, 팟캐스트 녹취 스크립트 작성 등 7명
- 민생희망본부 영화관 불공정행위 관련 자료 조사, 현장 활동 지원 등 6명
- 경제금융센터 언론 모니터링, 제보 자료 정리와 편집, 토론회 자료 편집 등 1명
-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제도 관련 조사 및 자료정리, 토론회 녹취 등 4명
- 평화군축센터 언론 모니터링, 국방과 핵 관련 자료조사 등 5명
- 국제연대위원회 참여연대 논평/성명 영문 번역 및 감수, 해외 인권 사례 모니터링, 개발원조 정책 모니터링 등 14명





## 시민의 놀이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사회 문제가 아무리 엄중해도 늘 무겁고 심각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는 보다 가볍고 신나게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습니다.

20주년 맞이 공간개선 프로젝트 '시민의 놀이터'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언제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참여연대 공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강당을 회의 이외에도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1층에는 회원과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카페통인'을 열었습니다.

업무공간이었던 2층도 규모있는 행사와 시민 모임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시민들과 통하는 공간, 카페통인

2014년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히 차를 마시고, 토론하고, 문화행사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2014.04.03.-05.29. • 목요 바느질모임
- 2015.1.22. • [북콘서트] 티모시브룩 북토크 '하버드 중국사 원/명'
- 2015.2.06. • [통인음악회] 하림 콘서트 Gate Lounge ①
- 2015.3.29. • [통인음악회] 프로젝트 코렐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 Vol.3' 연주회 ②
- 2015.4.14. • [북콘서트] 세월호를 기록하다
- 2015.3.16.-4.20. • [작은모임] 자연을 담은 손바느질 ④
- 2015.4.10.-4.19. • [세월호1주기추모 캠페인] 서촌가게들과 함께 하는 서촌길 노랑게 물들이기(67개 가게 동참)
- 2015.5.03. • [오픈하우스 서촌] 인문목공소, 하모나이즈 콘서트 ③
- 2015.7.24. • [북콘서트] 이재훈과 함께하는 클래식 400년의 산책



#### ◀ 맛있고 정성이 담긴 음료는 카페의 기본

소금으로 뽀뽀뽀뽀 닦아 정성스럽게 담긴 레몬차, 상근자들부터 주민들까지 매료시킨 뜨거운 자몽주스, 문경 회양산마을의 유기농 오미자청으로 만든 건강한 오미자 에이드까지, 분기별로 새로운 음료를 선보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료 드시러 꼭 한번 들려주세요. 회원은 10% 할인!



**모든 시민은 예술가다**

지하 느티나무홀과 1층 카페통인의 한쪽 벽면이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전문작가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 시민들의 작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느티나무홀의 낡고 무거운 책걸상을 바꾸기 위한 경매전을 진행했는데, 총 1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약 8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개인전, 동호회 단체전 등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 2014.03.15-03.28 •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그림책 정기전시회 '새로운 시작전'
- 04.21-04.30 • 이영선 개인전 '선\_사이를 잇다'
- 05.07-05.16 • 시민예술가 정지영 개인전
- 05.17-05.25 • 박아사 자수전 '아사의 꿈지락 이야기와 수다방 친구들'
- 06.04-06.09 • 아카데미느티나무 창작일러스트 4기 종강전시 '우리들의 맛있는 시간'
- 06.04-06.08 •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7기 종강전시 '그림은 나의 힘'
- 10.18-10.19 •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사진전
- 11.14-11.30 • 통인갤러리 개관기념전 '옥인동 주민 박민영이 그린 동네 풍경展'
- 11.24-11.29 • 느티나무갤러리 개관기념 '신나게 첫 걸음展'
- 11.30-12.06 • 가자로 보내는 선물展
- 12.07-12.13 •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8기 종강전시 '오전 10시'
- 12.14-12.20 • 아카데미느티나무 창작일러스트 5기 종강전시 '메리 그림마스(MERRY GRIMMAS)'
- 12.22-12.28 • 사진동호회 일우, 수상한 배, 산으로 가다
- 2015.02.02-02.15 • 윤지원 개인전<낮선공간>
- 04.03-04.09 • 녹색연합 사진전 <아름다워서 슬픈 가리왕산>
- 04.11-04.27 • 세월호 1주기 추모전시회 <꿈에라도 보고 싶다> ④
- 05.30-06.06 •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봄학기 '서울드로잉 9기' 전시회 <봄 - 서울을 보다 그리다>
- 06.08-06.14 • 여행작가학교11기 사진전<여행의 순간>
- 06.19-06.26 •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봄학기 '미술학교 인체드로잉' 그룹전시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원행사**

- |                          |                                                                                                                                                                                                                                                                                                                                                                                               |
|--------------------------|-----------------------------------------------------------------------------------------------------------------------------------------------------------------------------------------------------------------------------------------------------------------------------------------------------------------------------------------------------------------------------------------------|
| <b>총회, 창립기념식 및 부정기행사</b> | 2014.03.08 • 제20차 정기총회<br>07.19-20 • 창립20주년 기념 회원캠프 (문경새재)<br>09.15 • 꿈꾸는 청년 스무 살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기념식<br>10.18.-19 • 참여연대 20주년 맞이 오픈하우스 ⑤<br>11.24 • 자원활동가데이<br>11.27 • 칵테일과 함께하는 인턴 홈커밍데이<br>12.11 • 회원 송년의 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
| <b>회원월례모임</b>            | 2015.03.06 • 제21차 정기총회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br>04.18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 참여연대 행진<br>2014.03.28 • ① 강우근의 들꽃이야기<br>04.18 • ② 김득중상차 지부장의 '희망버스에서 노란봉투까지'<br>05.16 • ③ 세월호 참사와 고장난 나라<br>06.12 • ④ 권오훈 PD에게 듣는 'KBS 보도개입사태로 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br>09.23 • ⑤ 이재형 한의사가 들려주는 '소통, 그리고 사랑'<br>11.21 • ⑥ 휴먼라이브러리 "참여연대 사람들"<br>2015.05.19 • ① 박철우 대표가 들려주는 커피, 커피공방 이야기<br>07.18 • ② 법인스님이 묻다 :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 <b>지역회원 만남의 날</b>        | 2014.03.22 • <찾아가는 총회> 광주, 대구<br>03.29 • <찾아가는 총회> 대전, 부산<br>07.21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_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청주<br>07.23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_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창원<br>08.20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_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울산<br>11.05 •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_참여, 그 끝나지 않은 시작> 전주<br>2015.03.21 • <찾아가는 총회> 광주, 대구<br>03.28 • <찾아가는 총회> 대전, 부산<br>07.22 • <지역사회 민주주의 강좌_손에 잡히는 정치> 수원                                             |
| <b>청소년 프로그램</b>          | 2014.05.28 • 청소년 테이블 토크 <세월호, 우리들의 이야기><br>07.26 • 회원 자녀 및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조금 특별한 토요일><br>12.23 • 청소년 테이블 토크 <우리, 사랑하면 안 되나요>                                                                                                                                                                                                                                                                  |

"강좌가 이렇게 신나도 되나요?"  
아카데미느티나무



<민주주의학교> <인문학교>  
<시민예술학교>로 구성된 강좌들은 강의, 워크숍, 세미나, 답사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느티나무에서는 참여자, 강사, 기획자 모두가 서로 함께 배우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의 질문에 함께 답하고,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실천하는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답사모임> <그림者> 등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속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참가자들이 <느티나무지기모임>을 구성하여 느티나무의 기획과 운영을 함께 의논하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은 교사, 예술가, 정치가입니다

진보, 인문,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배움터로 2009년 새롭게 문을 연 아카데미스티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삶과 세상에 대한 열린 호기심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 2009 | 2014 |
|--------|------|------|
| 강좌(개)  | 23   | 49   |
| 참여자(명) | 730  | 994  |

2015년 6월 말 현재  
36개 강좌(참여자 659명) 진행중



아카데미의 진화는 계속된다\_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

-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꾸고 이뤄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드보커시와 직접행동> ❶
- 고령화사회 시니어세대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떻게 현실의 정치와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길을 찾아가는 <푸른시니어학교>
- 함께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공유가치를 만들어가는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❷
- 그림 창작을 통해 '나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스티나무 미술학교 - 인체드로잉> ❸
- 연극 형식을 빌어 우리 사회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시민연극워크숍>
- 나와 나의 내면, 공동체, 나아가서 나와 우주를 연결하는 의례(리추얼)를 직접 준비하고 실현해보는 파티 플랜 워크숍 <삶을 예술로, 삶을 축제로 - 리추얼 워크숍>

배움을 삶으로\_ 아카데미스티나무 소모임

- 근현대사 강좌를 수강한 이들의 소모임 <역사답사모임>
- 그림 강좌 후속 소모임으로 2011년부터 활동중인 <그림者> ❹
- 춤워크숍 후속모임으로 2014년 가을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❺
- 아카데미스티나무 강좌 모니터링, 기획 자문, 종강파티를 함께 만들어 가는 <스티나무지기모임>

다양한 아카데미 강좌들 [강의, 워크숍, 행사]

- 현경과 함께 토크리추얼 \_ 2015 여름 ❶
- 동아시아근현대사 윤현국 답사 \_ 2015 봄
- 해마다 여름이면 만나는, 박노자의 여름특강 \_ 2015 여름 ❷
- 한여름 더위도 아랑곳없이 <서촌 미술관 투어> \_ 2015 여름 ❸
- 특특!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워크숍 \_ 2015 봄
- 사랑해요, 아카데미스티나무~ 2014 가을학기 종강파티 ❹
- 머리와 몸 다 가볍게 뛰어다녔던 2015 봄학기 종강파티





## 청년이 바꾸는 세상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20대 청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운동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거쳐 가면서 이 프로그램은 시민활동가들을 발굴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어도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로 돌아간 청년, 언론사나 국회 등으로 진출한 청년들이 있을 테지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 참여연대의 몫이기도 합니다.

### 청년인턴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 13기 청년인턴 : 29명 / 2014.1.6.~2014.2.20. (108시간)

- 강연토론 : 협동경제학, 청년활동가와의 만남, 정치와 국회개혁, 참여연대20년사, 국가기관대선개입사건A부터Z까지
- 현장탐방 : 국민참여재판, 국회의원실, 환경운동연합, 전쟁기념관 평화박물관
- 직접행동 : 국회의원정수확대 캠페인, 공영방송KBS문제 알리기 캠페인, 공공주거정책 알리기 캠페인, 대학 근로장학생 실태 알리기 캠페인, 대학교육 실태 알리기 캠페인

#### 14기 청년인턴 : 23명 / 2014.7.1.~2014.8.14. (132시간)

- 강연토론 : 68혁명 들여다보기, 우리가 상상해야 할 복지국가, 비폭력직접행동의198가지, 전쟁과 평화, 시민운동 이렇게 바뀔 수는 없을까
- 현장탐방 : 마을공동체 품애, 인권재단사람, 국회의원실, 국민참여재판, 희망제작소
- 직접행동 : 국가장학금 폐해 알리기 캠페인, 인사청문회제도 비판 캠페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촉구 캠페인,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시민평가 캠페인

#### 15기 청년인턴 : 24명 / 2015.1.5.~2015.2.12. (144시간)

- 강연토론 : 애드보커시란 무엇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운동, 알록달록 등록금 파헤치기,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 다양한 글쓰기
- 현장탐방 : NPO지원센터 방문, 청년허브, 녹색당사, 민달팽이유니온,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실
- 직접행동 : 청년주거정책 알리기 캠페인, 학내문제 알리기 캠페인, 탈핵에 대한 의식개선 캠페인, 지나친 스펙문화 환기 캠페인

####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 26명 / 2015.7.6.~2015.8.6. (96시간)

- 강연토론 : 시민이란 무엇인가, 시민불복종과 민주주의, 알고 감시하자 - 정보공개청구, 안전한 사회를 위한 탈핵, 우리에게 왜 정치개혁이 중요한가, 세상을 향한 글쓰기
- 현장탐방 : 청년허브, 민달팽이유니온,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권재단사람,
- 직접행동 : 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청년주거정책 알리기 캠페인, 정치적 무관심 개선 캠페인, 학내문제 알리기 캠페인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공감하고 행동하는 청년 불온대장정 : 13명 / 2014.8.20.~2014.8.24. (4박5일) 10

- 청년들과 함께 사회적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연대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택 상용자동차 와라센터, 홍성 풀무학교, 4대강 세종보, 청도 삼평리 송전탑 투쟁현장, 고리원전)

#### 스케치북프로젝트 : 20명 / 2014.9.29.~2014.12.29. (3개월)

- 비용, 공간 등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시민운동을 직접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직접행동, 노동야학, 세대공감, 캠퍼스, 청년정책 등 총 5개 팀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 청연 : 30명 / 2013.11.15.~2014.06. (8개월)

- 참여연대 청년인턴, 청년연수에 참여했던 이들이 수료 이후에도 여러 사회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마석모란공원 답사, 남산 안기부터 답사, 세월호 참사 관련 5개 대학에서 오픈 테이블 진행, 밀양희망버스 참가, 토익불공정 행위 원고인단 모집 캠페인, 국정원 대선개입 풍자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 드디어 '청년참여연대'가 발족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에 청년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연금행동 등 여러 청년 문제들을 함께 제기했고, 청년연수와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것으로는 청년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사회적 해결을 논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 신설을 결의했습니다. 2015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10월에 드디어 '청년참여연대'가 발족합니다. 본격적인 청년참여연대 활동, 기대해주세요.

2015. 7. 11.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식



### 시민운동 체험 필수코스 - 탐방 프로그램

한국 시민운동을 알려거나 참여연대를 방문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문객은 해외 연구자, 활동가부터 국내 연구기관, 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 중고등학생, 대학생, 단체 활동가 등 68개 팀, 총 1,027명의 사람들이 참여연대를 방문했습니다. 해외 탐방객들의 방문도 이어져 중국 인권변호사 그룹, 일본 도쿄도 의원, 뉴욕시립대 학생들 등 18개 팀 총 212명이 방문했습니다.

탐방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UN 애드보커시 등 참여연대의 국제연대 활동, 권력감시·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하고, 시민활동가로의 진로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건물투어를 빼놓을 수 없지요. 숨어있는 서촌의 명소인 참여연대 옥상에 오르면 인왕산과 서촌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궁금한가요? 참여연대를 더 알고 싶나요? 참여연대로 오세요!

#### 참여연대 단체 방문객 총 1,027명

2014. 1 - 2015. 6

- 초등학교 70명
- 중학교 291명
- 고등학교 259명
- 대학(원) 90명
- 해외팀 212명
- 일반 105명

# 역사의벽



## 참여연대 21년의 발자국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은 활동의 기록이자 시민운동의 역사입니다.





p42 ©



p43 ©



p46 ①



p44 ①



p42 ①



p43 ©



p48 ①



p46 ①



p44 ①



p44 ①

\* 페이지 번호 + 알파벳으로 해당 사진의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p47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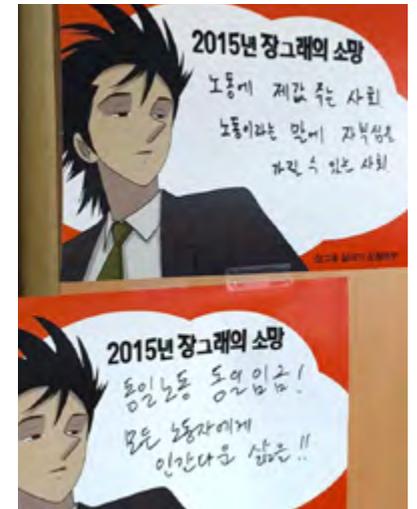
p45



p48



p44



p48



p46



p51



p49



p53



p51



p52



p53



p53



p51



p50



p54 ©



p55 ©



p55 ©



p55 ©



p56 ©



p54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2014년 4월 16일.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되는 날입니다. 참여연대는 한없는 슬픔과 부끄러움을 안고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시행령 폐기운동에 총력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부의 방해와 어깃장은 계속되고 있고, 진상규명 요구는 공권력의 폭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은 오롯이 우리 시민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으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4년 5월 22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습니다. 5월부터 유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특별법' 청원 천만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16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행진을 하고, 시민참여로 일간지 전면광고를 세 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미완의 세월호특별법. 하지만 법률안에 위배되고 진상조사를 무력화하는시행령에 저항하는 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 세월호 같은 고장난 나라를 바꾸려면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유가족의 보행을 가로막은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세월호 관련법'을 모니터한 보고서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향신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 공동기획을 연재했습니다. 또한 과거 여러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결성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참사 1주기 기획사업과 시행령 폐기 긴급행동

2015년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행령 폐기와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기획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상근자들이 힘모아 사무실에 대형 노란리본을 매달고, 출근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서촌길 노랑게 물들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북콘서트,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과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는 참여연대 단독 행진, 대규모 집회, 1박2일 농성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세월호 피해자가족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들이 함께 모여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16연대 / 416act.net)"가 발족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416연대 산하 국민참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힘과 참여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
|------------|------------------------------------------------------|
| • 05.22    | 60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 진행 ①⑤ |
| • 06.16-27 | [경향공동기획] '세월호 참사 두달, 이것만은 바꾸자' 7회 연재                 |
| • 07.15    | 350만 국민의 416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행진                           |
| • 07.23-24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동조단식등)                            |
| • 08.15    |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416 국민농성                       |
| 2015       |                                                      |
| • 03.30    | 세월호 시행령 폐기 긴급행동                                      |
| • 04.01-16 | 참여연대 시행령 폐기, 인양촉구 출근행진 ①②                            |
| • 04.01-30 | [경향공동기획] '세월호 1년 진단 - 무엇이 바뀌었나' 8회 연재                |
| • 04.09    | 세월호 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                                     |
| • 04.11    |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발표                       |
| • 04.18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주기 참여연대 행진                              |
| • 05.01-02 | 세월호 시행령 폐기 1박 2일 농성 참여                               |
| • 06.28    | 416연대 발족                                             |

##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향해 나아갑시다”

창립 20년을 맞은 2014년 참여연대는 다양한 기획, 기념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20주년위원회인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참여연대의 2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발표한 결과물이 바로 <20주년 선언문 - p.72 참조>과 <성찰과비전보고서 - p.74 참조>입니다.

### 20년 활동의 기록과 평가

출판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책자 3권과 총 3권으로 이루어진 20주년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기념책자로는 참여연대에 대한 학술연구서 <감시자를 감시한다>, 우리사회 비전에 대한 보고서인 <반성된 미래>,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역사인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를 출간했습니다. 2층 역사와 벽과 내부 계단 벽에는 참여연대 20년의 주요활동과 소송, 입법 성과를 새겨놓았습니다.

### '시민의 놀이터' 사업/ 회원과 함께한 기념행사

공간개선위원회를 꾸려 참여연대 사옥을 시민의 놀이터로 바꿨습니다. 140명 가까운 회원들과 회원캠프를 다녀왔고, 7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오픈하우스와 홈커밍데이를 열어 오랫동안 전직 임원들, 상근자들과 함께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
|---------------|--------------------------------------------------|
| • 01.01-08.17 | 참여연대 20주년위원회(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                        |
| • 07.19-20    | 20주년 기념 회원캠프 ①②                                  |
| • 09.01       | 창립 20주년 심포지엄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모색' 개최 ①③ |
| • 09.10       | <반성된 미래>, <감시자를 감시한다>,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출간        |
| • 09.15       | 창립 20주년 기념식, 20주년 선언문 및 성찰과비전보고서 발표              |
| • 10.18-11.28 | 오픈하우스, 사회복지, 권력감시부서 홈커밍데이                        |
| • 12.31       | 20주년 백서(총 3권) 발간                                 |

## ‘소비자 권리’ 되찾기 캠페인

###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대응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도 2014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4월 27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통신비 인하 캠페인 전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단말기유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소송을 제기해 항소심(2014년 2월)에서도 승소했습니다. SKT가 통신장애 문제로 560만 명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보상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아 참여연대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 위한 입법 활동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임대인(집주인)의 권리만 보장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응하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준공공임대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상가 세입자 등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임대인의 횡포로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을 보호하는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 “영화관 확 바꾸자” 캠페인

영화관 문제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영화관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고, 팝콘, 음료 등 스낵가격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변·청년유니온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영화관 3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15년 6월 공정위는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2.05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
- 02.1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승소
- 03.06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3개 입법안 공동발의
- 10.01 통신사 폭리반환 및 통신비 인하촉구 공동기자회견 ❶❶
- 08.25 SKT 불통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0.01 통신사 폭리반환 및 통신비 인하촉구 기자회견 ❷❶
- 11.11 상가임차인 보호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2.16 부동산 3법 개악저지, 주택임대차법 개정촉구 ❶❶
- 2015**
- 01.15 통신요금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방안 이슈리포트 발간
- 02.09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❶❶
- 02.12 영화관 3사 문제점 worst10 발표
- 02.11 통신비 인하 실현 단말기유통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03.26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 규탄 기자회견 ❷❶
- 04.07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구성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 04.21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학교 앞 화상 경마장을 막아라

마사회가 주민 동의 없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장을 학교와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밀집된 곳에서 개장했습니다. 용산구 성심여자중학교 인근 지상18층 대형 화상 경마도박장입니다.

2014년부터 참여연대는 용산주민대책위와 함께 주거환경과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화상경마장의 입점과 개장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행산업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마사회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청구, 신고 조치 등을 했습니다. ‘화상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제민주화의 불씨를 살려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을개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경제활성화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이자 해법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2015년 ‘경제민주화 시즌2’ 에 나서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대응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망가진 경제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참여연대는 ‘역대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 참상 WORST 11’ 보고서(2014년 4월) 발표에 이어 2015년에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한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지자체

### 주요활동

- 2014**
- 07.14 용산화상경마장 입점,개장 과정에 대해 마사회·농림부 감사청구
- 08.19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안 발의
- 2015**
- 05.29 마사회 개장 시도 규탄 기자회견 ❷❹
- 06.23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의혹 여성가족부 등에 신고
- 07.07 마사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법 위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
- 07.29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국세청 신고

조례’ 수백 건을 규제혁파 대상으로 선정해 폐기하려는 것에 맞서 참여자치지역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대응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유형별로 4차례의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이러한 피해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건설하도급 분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공정위 신고와 검찰 고발, 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개 법률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제도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중소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갈취 문제를 추적해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변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신고인(거래상 약자)의 지위를 대폭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재벌대기업 특혜 막기 위한 입법활동

참여연대 2015년 중점과제 중 하나가 '삼성 등 재벌대기업의 특혜와 특권 바로 잡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재벌의 지배구조에 악용되는 제도를 개혁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했습니다. 삼성그룹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을 통한 천문학적 상장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재용특별법'), 공익재단을 지배구조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이 추가의 자본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자사주 제도의 개혁을 위한 '상법', '법인세법',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이들 법안들을 널리 알리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근로감독을 감시하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만큼 최저임금을 잘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과 관계된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지도·감독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년부터 최저임금의 결정, 단체협약 시정 등 정부의 근로감독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최저임금법, 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에 관한 근로감독의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계와의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문화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9.25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발의
- 11.04 건설하도급 불공정 실태 진단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11.18 [중소기업 피해사례1] '사업협력 제안 후 배신'
- 12.10 건설업계 갑의 횡포 근절 위한 4대 법률 개정안 발의

#### 2015

- 01.29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재용 특별법) 제정 지원
- 03.24 [중소기업 피해사례2] '키코(KIKO) 피해사례'
- 04.08 신고인 지위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04.14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발표
- 05.12 [중소기업 피해사례3] '사법도 갑질'
- 06.12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지원
- 06.25 [중소기업 피해사례4] '사업협력 제안 후 배신' ❶⑨
- 07.07 연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안 반대의결권 촉구 ❶⑩

### 주요활동

#### 2014

- 08.13 [질의서]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관련
- 08.28 [질의서] 청주고용노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 관련
- 10.27 [질의서] 안동지청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 관련
- 10.23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❷⑥
- 11.26 [이슈리포트]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1

#### 2015

- 06.02 [토론회]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06.18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 06.23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보고서1: 최저임금법6조 반론을 재반박
- 07.07 최저임금 1만원 인상촉구 문화제 ❷①
- 07.07 [이슈리포트] 근로감독보고서2\_노조법과 근로자참여법

###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보장성을 유지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공무원사회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연대체는 2015년 3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알기 쉬운 설명자료로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청년토론회, 국제심포지엄, 노동시민사회계가 함께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는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 50%인상 방안 마련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제기한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론을 반박하는 카드뉴스,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 주요활동

#### 2014

- 11.25 [국제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의 올바른 방향 논의

#### 2015

- 03.11 [기자회견] 진보적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발족
- 03.26 [청년토론회] '우리 지금 공무원연금 시험 봐도 될까?' 속명여대
- 04.25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대회 '연금야, 노후를 부탁해' ❷②
- 05.06 [기자설명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 05.06 [보도자료] '도를 넘어서 보건복지부의 정보왜곡 규탄'
- 05.21 [긴급토론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개최

### 의료 영리사업에 국민 건강 맡길 수 없어요

####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강행하였습니다. 높은 반대여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에도 벗어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인 원격의료,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고 있고, 산얼병원에 이어 제주국제녹지영리병원 설립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설명회 개최와 의견서 발표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 메르스 사태 대응과 공공 의료체계 개선 제안

정부의 메르스 초기방역 실패로 두 달여 동안 사망자 36명, 확진자 186명이라는 충격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감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의료 영리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메르스 8문 8답을 작성하여 메르스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정보 차단으로 메르스가 비극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알렸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공공의료 확충, 지역거점 병원 확충, 국가방역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 주요활동

##### 2014

- 08.30 [국민실명회] 의료민영화 괴담인가 진실인가 ㉠
- 09.23 [기자실명회]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 총체적 부정 MB 자원외교 진상을 밝혀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이보다 더한 부실 사업이 있을까요? 이미 부도난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막무가내로 투입하는 등 자원외교는 부실과 부정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예산 낭비 의혹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진통 끝에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여당의 노골적인 국정조사 방해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출석과 청문회 실시는 무산되었습니다.

### 위법 부당한 정부 재정사업 책임 묻는 국민소송법 발의

참여연대는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해외자원개발의 주역인 3공사(석유,가스,광물)의 전 현직 사장과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 이명박 정부 시절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이자 메릴린치 서울지부장인 김형준씨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뒷선 개입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외교사업이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의 위법·부당한 재정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발의하여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2.02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기습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 12.04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촉구
- **2015**
- 04.27 [기자회견] 국내 영리병원 허용 조치가 되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 촉구
- 06.11 [기자회견]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요구
- 07.02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07.06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07.20 [정책자료]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외교 8대 정책과제
- 07.28 [기자회견] 메르스, 이제 덮으려 하는가? ㉠

#### 주요활동

##### 2014

- 10.07 [기자회견] 광물자원공사의 불레오 동광사업 2조 탕진 진상규명 촉구
- 10.27 [기자회견]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촉구
- 10.29 [입법발의]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소송법 발의
- 11.04 [고발]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 11.20 [기자회견] 하베스트 NARL 혈값매각으로 실상 공개 및 국정조사 촉구
- 12.11 [토론회] MB 자원외교의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015

- 02.03 [연대]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결성
- 02.04 [기자회견] ‘MB자서전 자원외교 관련 거짓말 규탄-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 MB 자택 앞 기자회견 ㉠
- 02.23 [고발]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 관련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검찰 고발
- 03.17 [토론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토론회
- 03.31 [직접행동] 자원외교 사기의혹 5인방 청문회 증인채택 및 출석 촉구 새누리당 항의방문
- 04.28 [여론조사] 자원외교 문제와 고 성완중 게이트 여론조사결과 발표 (MB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

## 관피아를 막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 운동

### 공직자윤리법 개정 성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관유착의 관행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힘썼습니다. 정부(안행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19대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분석해 법안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참여연대가 2013년 청원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 김영란법 제정 촉구 활동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정부발의)’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문제 삼아,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법 통과에 제동을 걸자 이를 비판하고, 정치권 면담, 의견서 제출,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여 법 제정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습니다.

### 백지신탁제 실태 조사와 개선과제 제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신탁주식을 60일 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오래동안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주식 처분에 관한 감독현황을 공개질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탁주식처분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좌담회를 개최하여 백지신탁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개정 못지 않게 제도운영도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를 비롯해 관련법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백지신탁제도와 같이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활동

##### 2014

- 06.10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9.03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발행
- 11.11 [이슈리포트]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발행
- 11.11 [공동서한]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제·개정촉구서한, 국회 정무위원과 안행위원들에게 전달 ㉠

##### 2015

- 02.02 [기자회견]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02.05,11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5),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2/11)과 면담
- 02.02-03.02 [직접행동]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을 지켜라 1인 시위
- 06.23 [이슈리포트]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 06.23 [좌담회]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 공익제보

세월호 참사는 비리와 부패, 부실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참여연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성과

세월호 참사 직후, 52인의 공익제보자와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대 국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즈음하여 시민안전을 지킨 공익제보 사례들을 소개하는 전시회, 홍보물 배포 등 시민캠페인(4/11~12)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안전 위협을 제보한 6인의 공익제보자들과의 공동성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5년 7월, 참여연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강제성이 부여되는 등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 공직제보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원 활동

시민들에게 공익제보 사건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조직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를 폭로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시민 1,782명의 응원메시지를 모아 전달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상욱씨가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나,

사학재단의 회계비리 등을 제보한 동구마케팅고 안중훈 교사가 학교로부터 파면조치된 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익제보자를 보호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2014년에도 <제5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2.26 [응원] 힘내라 권은희! 1,782명의 응원메시지를 전달
- 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 06.26 [의견서]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무죄 의견서 1,264명 시민과 공동제출
- 08.22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 09.29 [시사회] 영화 제보자 ㉠
- 11.12 [의견서]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
- 12.02 [전시회]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 12.08 [행사] 2014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 2015**
- 04.11-19 [캠페인] 세월호 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 04.06 [공동선언] 시민안전 위협을 공익 제보한 6명의 공익제보자와 참여연대 공동선언문 발표
- 04.20 [의견서] 시민 3,653명, 안중훈 교사 2차 파면취소 요청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
- 04.21 [의견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정치개혁, 시민이 나선다

### 시민방청단,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개 요구

대의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작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의 네 번째 시민행동으로 폐쇄적인 국회 회의방청 제도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을 운영했습니다. 22명의 시민방청단은 3주 간, 상임위 전체회의 20회와 소위원회 회의 25회, 총 45회 방청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하는 소위원회는 비공개 관행, 회의장 자리 부족, 민감한 안건 처리 등을 이유로 25회 방청 신청 중 17회나 불허했습니다. 방청단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회 회의 공개는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자유로운 회의 방청을 위해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방안 발표

국회는 2015년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선거·정치개혁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밀착 감시했습니다. 2015년 6월 30일에는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표에 절반에 달하는 사표를 대폭 줄이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거·정당을 전공한 정치학자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공동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범국민 정치개혁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와글와글 부글부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개혁

정치와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은 그만큼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연대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시민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4월 22일 서울에서, 7월 16일 충남 당진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들과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 주요활동

- 2014**
- 11.10-28 [직접행동]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
- 12.15 [보고서]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발표 및 국회에 전달
- 2015**
- 03.03 [기자회견] 국회 정개혁위 구성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04.09-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시리즈 논평
- 04.22 [시민원탁토론] 서울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
- 06.17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 06.30 [기자회견] 사표는 없애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 발표 ㉢
- 0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 07.23 [시민원탁토론] 충남 당진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 판결을 비평하고, 법원과 검찰을 감시했습니다

###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출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판결 비평 칼럼 66편을 엮어, 단행본 <공평한가?> (북콤마 출판사)를 출판했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또는 반대로 인권 증진에 기여한 판결들에 대한 비평집입니다. 일간지는 물론 법률 전문지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지역 도서관에도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도서 신청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출판 기념특강으로 전수안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읽으며 토론하는 ‘판결문읽기모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자격 없는 대법관 후보자 반대 활동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촉구 활동

촛불재판에 개입하여 참여연대가 퇴진을 촉구해온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 담당 검사였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대학민주동맹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박 후보의 자진사퇴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임명 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법관 인선의 핵심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입니다. 하지만 법관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기수와 서열대로 후보를 추천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법관 중심으로 편중된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를 발표하여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박상옥 후보처럼 사전에 전력을 검증하지 못한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비판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구성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검찰 감시 활동

2014년과 2015년 정기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그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모니터하고 2015년 6월에는 이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팩트북\_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발간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4.01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07.02 [보고서]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 08.21 [보고서] 청와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확대되고 있는 청와대 검사 파견>
- 08.24 [보도자료] 2000년~2014년 편중된 대법관 후보자 현황 조사 발표
- 09.26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국정원 정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온라인 시민공개강좌 웹페이지 개설
- 10.07 [좌담회] RTV 역사다큐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판결 비평
- 11.19 [좌담회]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암 발병 책임 첫 인정> 판결 비평
- 2015**
- 02.13 [출판] 2005~2014 판결비평 모음집 <공평한가?>
- 02-04 [집중행동]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수사 검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
- 04.22 [보고서] 박근혜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 04.28 [특강] 출판 기념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
- 06.15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발간

## 표현의 자유 침해,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제도, 법률에 대한 공익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왔습니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고 방심위가 CBS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CBS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국민이 정부정책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이러한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해경의 구조소홀 등을 비판한 홍OO씨에 대해 해경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 변론에 나섰다, 법원은 홍OO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소송과 별개로 주관적인 모욕감을 이유로 인터넷상 토론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소송 진행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들의 직권 남용 사례도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보행을 차단하고, 진도에서 유가족들의 통행을 차단한 경찰들을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CCTV로 감시하고 촬영한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고, 교통용 CCTV를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경찰이 항고하여 현재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밖에 기자회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5.15 [고발] 노란리본 시민 보행차단과 유가족 통행 차단한 경찰 지휘관 고발
- 05.15 [공익변론] 세월호참사 관련 해경 비판 언론한 홍OO씨 명예훼손죄 기소 변론
- 07.09 [공익소송]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취소소송 제기
- 10.07 [좌담회] 백년전쟁 판결비평 ㉢
- 10.16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발표
- 2015**
- 01.09 [승소]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OO씨 공익변론 승소
- 01.19 [승소] 2013년 제기한 이통통신3사의 통신자료 무단제공 현황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01.23 [승소] 박창신 신부 인터뷰 CBS에 대한 제재 취소 소송 승소
- 04.04 [토크쇼] 대통령을 풍자한 사람들과 경찰의 우스꽝스러운 대응 ㉣
- 04.16 [공익변론] 경찰관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 변론 진행
- 04.28 [증거보전 신청]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한 교통용 CCTV증거보전 신청
- 05.27 [공익소송] 기자회견 도중 긴급체포된 주최자 손해배상소송 제기
- 06.02 [공익소송] 세월호참사 1주년 국민대회 참가자의 통행제지 경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

### 한국전쟁 종식과 비핵시대 설립 공론화

분단 70년.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 반핵평화단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핵확산방지조약(NPT) 검토회의에 참석해 역내 핵 위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분단체제를 끝내고, 동북아 비핵시대를 수립해 ‘핵없는 세상’ 실현을 앞당기자고 호소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등 동북아 시민사회간의 대화와 협력의 틀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일본 재무장 반대 시민행동

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과 안보법제 추진에 항의하는 시민평화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사일방어체계(MD) 배치와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2014년 12월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2013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사드(THADD) 배치 시도와

#### 탄저균 반입·실험 문제 대응

미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 시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등 평화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실험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7 공군사령관을 고발하는 국민고발단 모집 활동을 했습니다. 탄저균 반입 실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재발방지를 위한 SOFA 개정 등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4.21 [보고서]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표
- 10.09 [의견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 관련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발표
- 10.16 [시국회의] 일본 재무장 반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2차 시국회의
- 12.29 [기자회견] 위헌, 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 2015

- 02.23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 04.25-05.04 2015 NPT검토회의의 참가, 부대행사 개최와 평화행진 등 활동 ④⑤
- 04.27 [공개서한] 국내 평화단체, 아베총리 연설 관련 미 의회에 서한 발송
- 06.01 [공개질의]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
- 06.10 [이슈리포트]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의 평가
- 06.22 [국민고발]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④①
- 06.30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06.23-24 [국제회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 (몽골, 울란바토르)

## 평화는 먼저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 강정을 생명평화 마을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에 맞서 싸워온 지 벌써 9년. 해군기지는 2015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안보상 문제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 부재와 환경생태 파괴, 공동체와 인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생명평화대행진을 함께 개최해 제주도 전역을 돌며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기지로도 모자라 마을 한 복판에 지어지는 군관사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맞섰습니다.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적 탄압을 받은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법률 지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 군 안보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2014년 군 장교가 한 초등학교에서 국방부가 만든 영상을 안보교육 시간에 상영했다가 학생들이 잔인한 장면에 충격을 받아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500여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시청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영상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보교육 실태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나섰습니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군인권기본법 제정과 군 음부즈먼 제도 도입, 군사법원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안을 제출했습니다.

### 군축 캠페인, 무분별한 해외 파병 저지 활동

세계군축행동의 날(4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를 내건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눈에 전 세계 군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2014년 말 국군의 해외파견을 대폭 확대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일명 해파법)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 해당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3.26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출범
- 04.14 [캠페인]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및 선언 발표
- 07.28 [기자회견] 안보교육 실태 공개 촉구 ‘안보교육 이대로 괜찮습니까?’ ④⑤
- 07.29-08.02 [대행진] 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개최
- 08.19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10.25-31 [캠페인] 청소년 군사화에 저항하는 국제행동주간 연속 캠페인
- 10.27 [행정심판]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 12.01 [입법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청원
- 12.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 2015

- 01.27 [워크숍] 제주 세계 평화의 섬 10년 워크숍 -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 04.13 [캠페인]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06.10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군사법개혁 불가능하다
- 06.30 [기자회견] 강정 투쟁 3,000일, 2015 대행진과 함께하는 100인 선언
- 07.27-08.01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④⑥⑦

## 국경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연대

### 정부 ODA 정책 감시

공적개발원조(ODA)는 제3세계 빈곤퇴치와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원외교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ODA 목적에 위배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자원외교용으로 ODA를 악용하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5년간 한국 개발원조 정책을 좌우할 2차 ODA 중기계획에 대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앰네스티, 포럼아시아, 씨비쿠스 등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 주요활동

- 2014**
- 02.16 [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 제출
- 06.23 [보도자료]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 08.14 [Brochure] We Want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Tragedy 제작
- 12.02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 2015**
- 03.31 [이야기마당] IS의 탄생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 03.31 [공개질의] 국무총리에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03.24 [의견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4.27 [보도자료] 아시아 인권단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규탄 성명 발표
- 06.24 [토론회]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 06.25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㉔㉕
- 06.25 [이슈리포트]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 07.21 [유엔청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구속 관련 유엔 긴급청원 제출

###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아시아 연대

2007년부터 프레시안에 게재하고 있는 ‘아시아 생각’ 칼럼을 통해 미얀마(버마) 대선, IS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프가니스탄 대선, 아시아의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이슈를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몇 달 째 바다를 떠돌며 고통받았던 수백만의 로힝야 보트피플에 대한 성명 발표, 중국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활동가 석방과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에도 연대했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초청, 이야기마당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국내 인권 실태 알리는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

참여연대는 프란체스코 교종 방한 즈음하여 각종 외신에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와 진상규명 위원, 미국 9.11 참사 유가족 등을 초대해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당시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에게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 평화복지국가를 모색하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주요 연구주제는 ‘시민’, ‘참여’, ‘정치’입니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안,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1회 칼럼으로 <시민정치시평>을 발행하고, 반년간 학술잡지<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자 법인격을 해소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 '평화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연구소는 2012년부터 복지국가 비전과 이행전략을 연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복지국가와 함께 ‘평화국가’의 전망을 결합한 ‘평화복지국가’라는 개념과 이론의 정립,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구성과물로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를 출간했고, 2014년 11월부터 후속연구인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정치시평 222호 ~ 311호 발간

2011년부터 프레시안에 게재하고 있는 <시민정치시평>을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9일 222호 <민영화 아니다? 그렇다면 수서발 KTX 정체는?\_김군 공동대표>를 발행했고, 2015년 6월 24일 311호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_송기호 변호사>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치시평>은 비판적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공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 주요활동

- 2014**
- 01.10 [연속토론회] '다시 삼성을 묻는다' 개최
- 01.24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4호 출간
- 05.19 [긴급토론회]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개최
- 06.10 [라운드테이블]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개최
- 07.04 단행본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출간
- 08.04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25호 출간
- 11.03 단행본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출간
- 11.12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 개최
- 12.31 단행본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출간
- 2015**
- 01.30 반년간지<시민과 세계> 26호 출간
- 05.22 법인 해소 위한 행정 절차 마무리와 청산 총회 개최

##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더 가깝게

### 사이트 개편과 SNS 활동 강화

홈페이지를 PC/테블릿/모바일 등 어느 기기에서나 보기 편하게 개편했습니다.

2011년 트위터 개설, 2012년 페이스북 개설에 이어 2015년 카카오톡을 개설하여

팔로워 10만을 목표로 SNS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기준으로 **트위터** 47,178 /

**페이스북** 10,717(프로필계정 +1,758) / **카카오톡** 2,915 (카스 460) ➔ 63,028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알기 쉽고 소통하는 참여연대가 되기 위해 콘텐츠를 개선하고, 새로운 유동체널을 확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뉴스 제작을 본격화했습니다. 카드뉴스는 SNS와 다양한 외부매체(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등)에 업로드하여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만 22개의 카드뉴스(p.69 참조)를 제작했습니다.

### 참여연대의 새로운 매체 팟캐스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환경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시민 미디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0주년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안미디어사업을 결의하고, 그 출발로 팟캐스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시작하여 12월까지 '참여연대가 만드는 세상이야기(이하 참만세)'라는 타이틀로 14회를 제작했고, 6회의 특집/인터뷰까지 총 20회를 제작했습니다.(진행 : 김정인 교수)

재정비 기간을 거쳐 2015년 6월부터 '참팟' (참여연대의 확장기, 참된 팟캐스트, 새참같이 반가운 팟캐스트, 진행: 안진걸, 한상희, 정태인)이라는 타이틀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참팟'은 7월까지 7회를 제작, 유통했습니다. 호평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의 청취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2014

- 07.10 [참만세 1회] SKT통신장애/ 해외의 재난후 진상규명/ 의약품 유통기한 표기
- 07.17 [참만세 2회] 세월호특별법/ 론스타 논란 총정리
- 07.24 [참만세 3회] 용산 화상경마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
- 08.14 [참만세 4회] 실업급여/ 노인양육병원

- 08.22 [참만세 5회] 군인권, 군사음부즈만/ 공익제보자보호
- 08.26 [인터뷰] 안진걸, 팟캐스트 진행자 김종배를 만나다
- 08.29 [참만세 6회] 수원대 국정감사와 김부성의원/ 청와대 법무부 파견 검사 실태
- 09.04 [참만세 7회] 박근혜식 민생법안의 검은 속내
- 09.18 [참만세 8회] 참여연대 20년 활동의 비하인드 스토리
- 09.25 [참만세 9회] 당신은 누구입니까 - 활동가? 간사? 시민?
- 10.02 [참만세 10회] 떴다! 생활임금/ 질문있습니다! 국정감사
- 10.17 [특집] 과학과 신화의 싸움 -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과 친구들
- 10.27 [특집] 위협받는 사이버공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11.13 [세월호200일특집1] 세월호 200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1.20 [세월호200일특집2] 세월호 유가족 국민간담회
- 11.27 [인터뷰] 대안미디어에서 보는 희망, 그리고 이 시대의 시민운동 -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 12.05 [참만세 11회] 나는 국회가 하는 일을 알 권리가 있다.
- 12.12 [참만세 12회] 우리는 왜 노동문제를 외면하는 것일까?
- 12.19 [참만세 13회] 대한민국 상위 1%, 그리고 대형마트 판결논란
- 12.24 [참만세 14회] 청년, 청년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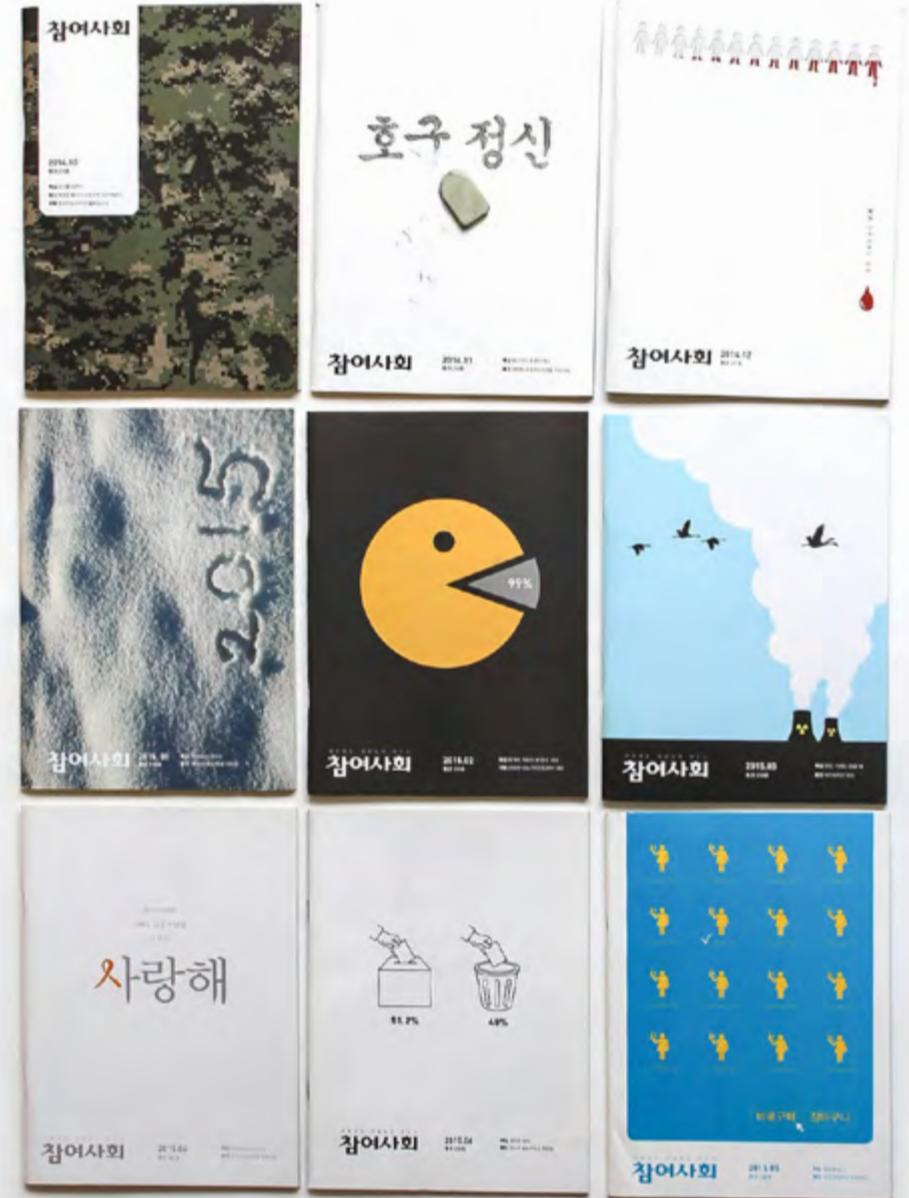
#### 2015

- 06.17 [참팟 1회] 메르스가 '코르사'로 돼가는 이유
- 06.24 [참팟 2회] 5,580원 vs 1만원,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
- 07.01 [참팟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 07.07 [참팟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식'
- 07.15 [참팟 5회] 법 앞애 선 동성혼
- 07.22 [참팟 6회] 변하지 않는 삼성,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없다?
- 07.29 [참팟 7회] 여름 휴가, 이런 책을 어떤가요?

회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매체 - 월간 <참여사회>

2015년 6월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회원들이 참여연대 정보를 습득하는 통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매체가 바로 월간 <참여사회>입니다. 2012년 이후 변경하지 않았던 참여사회 내지 레이아웃을 2014년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의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적극 유통시키는 활동은 SNS는 물론, 사무실 인근 상점과 전국의 도서관, 서점 배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4. 01-2015. 06 - 특징명

- |               |                    |               |                     |
|---------------|--------------------|---------------|---------------------|
| • 01월 통권 206호 |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갑오년 | • 05월 통권 210호 | 선거,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
| • 02월 통권 207호 | 정당의 실종             | • 06월 통권 211호 |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
| • 03월 통권 208호 | 정보인권               | • 07월 통권 212호 | MB의 긴 그림자           |
| • 04월 통권 209호 | 빈곤과 자살             | • 08월 통권 213호 | 일과 휴가               |
|               |                    | • 09월 통권 214호 | 20살 참여연대            |

- |               |                |               |               |
|---------------|----------------|---------------|---------------|
| • 10월 통권 215호 | 군대를 말한다        | • 03월 통권 220호 | 원전, 이제는 멈출 때  |
| • 11월 통권 216호 | 호구거나 호갱이거나     | • 04월 통권 221호 | Remember 0416 |
| • 12월 통권 217호 | 정책실패의 비용       | • 05월 통권 222호 | 일값 몸값         |
| • 01월 통권 218호 | 미리보는 2015      | • 06월 통권 223호 | 정치의 장치(裝置)    |
| • 02월 통권 219호 | 통계와 지표로 본 한국사회 |               |               |

2012년부터 매월 표지 디자인에 도움주시는 박정진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 7건의 의미 있는 판결과 행정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 07. 16

#### 퇴직 대법관의 수임 제한 위반 혐의 인정 벌금 선고

대법관 재직시절 공익제보자 정모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이었던 판사가 퇴직 후, 동일한 사건을 다른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2012년 4월 해당 변호사를 고발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고검은 참여연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 08.14

####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2011년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일어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기는 커녕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스스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홈페이지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정보 등에 대해 공개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5. 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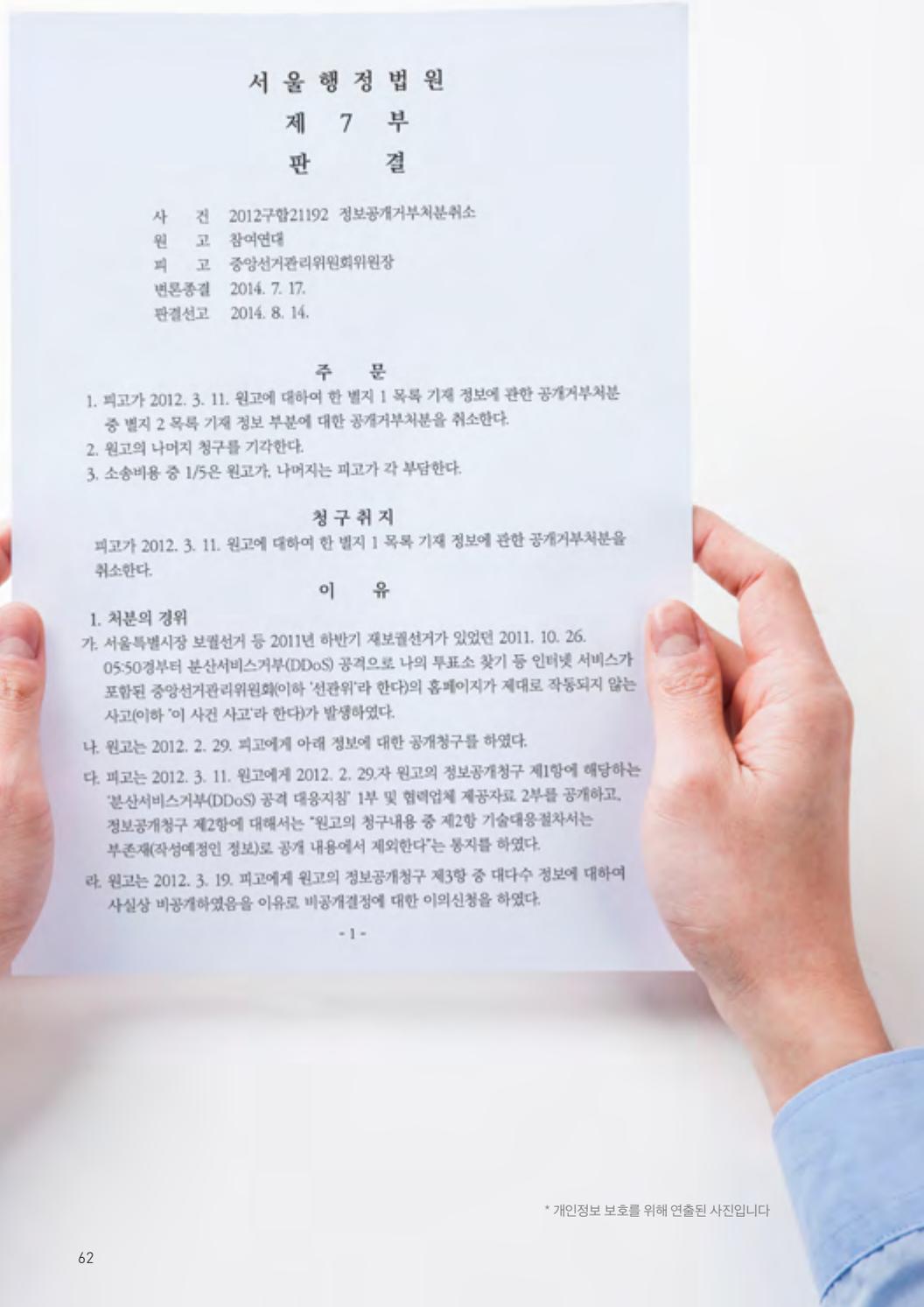
#### 세월호 구조 무능을 비판했다가 체포된 시민 공익변론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진한 세월호 구조작업을 비판했다가 해경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체포당한 홍모씨를 공익변론했으며,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희생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으면서 반성은 커녕 비판적인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해경에게 과연 훼손당할 명예가 있을까요?

2015. 01. 19

####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3사에 손해배상소송 2심 일부 승소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영장없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무분별하게 응해왔으며, 제공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도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 4월 16일 통신3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현황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해 5월 20일 1심 일부승소에 이어 2015년 1월 19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후 통신3사는 개인정보 제공현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출된 사진입니다

## 2015. 01.22

###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공익변론 승소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인사를 인터뷰하고, 출연자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사 CBS에 내려진 방통위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권 비판적인 주장을 단지 소개했다는 것 만으로 중립성 위반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방통위 심의를 무기로 한 비판언론 옥죄기, 참여연대가 공익변론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2015. 03.06

### 농심재벌의 대리점 노예계약횡포와 불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떠넘기고 이에 미달한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 농심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2년 7월 1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위는 2015년 3월 6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까지 무려 2년 7개월이나 걸리면서 대리점주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과징금도 매출에 대비해 턱없이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 2015. 03.26

### ‘국민 미개 발언’ 트윗했다가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말아 승소

2014년 10월 22일 검찰은 6.4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전 서울시장후보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대학생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러한 행태에 참여연대가 공익변론을 맡았으며, 2014년 12월 24일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3월 26일 2심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입법 2014. 1 ~ 2015. 7

총 23개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입법 청원 했습니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세월호특별법>과 직접 청원하지 않았지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
|------------|-------------------------------------------------------------------------------------------------------------|
| 2014.02.05 | • <소비자집단소송법> 공동발의                                                                                           |
| 02.27      |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입법청원                                                     |
| 03.06      | • 주택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
| 08.20      | • <사감위법> 일부개정안·<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
| 09.24      | •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
| 10.29      | •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공동발의                                                                              |
| 07.09      | • 4-16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청원<br>▶ 2014. 11. 7 미완의 특별법 국회 통과                                  |
| 11.11      | •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
| 11.20      | • 뉴타운·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
| 12.01      | •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 제도개혁> 등 의견 청원             |
| 12.09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br>▶ 2013. 07. 24.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되어 개정                             |
| 12.10      | •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 법률(<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안 공동발의 |
| 2015.02.11 | •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입법 청원                                                         |
| 02.23      |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
| 03.03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국회 통과<br>▶ 직접 청원하지 않았지만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입법운동 진행                              |
| 04.08      | •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 05.29      | •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기본법> 통과<br>▶ 2012.11.2 참여연대가 이미경 의원과 공동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제정                       |
| 07.06      |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br>▶ 2013.12. 12 참여연대가 청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어 개정                            |

## 소송·공익신고 2014. 1 ~ 2015. 6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공권력의 폭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갑질'도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78건의 민·형사 소송, 헌법소원, 공익 변론, 행정심판 청구, 관계당국 신고, 공익감사 청구 등을 제기했습니다.

|               |            |                                                             |
|---------------|------------|-------------------------------------------------------------|
| <b>소송(41)</b> | 2014.02.27 |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
|               | 03.04      | • 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
|               | 03.19      | • 론스타 사태 책임 금융관료 6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
|               | 03.24      | •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
|               | 04.17      |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8명 검찰 고발                           |
|               | 05.15      | •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통행을 불법차단한 경찰 지휘관들 직권남용 고발                    |
|               | 06.19      | •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
|               | 06.19      | • 서해중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
|               | 06.19      | •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
|               | 06.25      | •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
|               | 06.25      | • 새누리당 김부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고발       |
|               | 06.26      |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법인 영리화 추진 관련 직권남용 고발                       |
|               | 07.03      |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
|               | 07.08      | • CBS <김현정 뉴스쇼>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 소송 지원                           |
|               | 08.20      | •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앰 대표·전우 고발                                |
|               | 08.25      | • SKT 불통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
|               | 09.23      | •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용산경마장 이전 승인 신청서 허위작성 고발                     |
|               | 09.29      | •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마사회 고소(공동) |
|               | 10.10      | • 경찰의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
|               | 10.13      | • 휴대폰 가격 뺑뺑기와 폭리 등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 고발                         |
|               | 10.14      | • 2010년 신한지주사태 비상대책위 문건 관련 라운찬 등을 추가 고발                     |
|               | 10.14      | • 정치 및 선거개입한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
|               | 10.29      | • 현명관 마사회장을 경비업법 위반, 집회 방해 등으로 고발                           |
|               | 11.04      | •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의외교' 핵심 관계자(한국가스공사 전현직사장) 고발                |
|               | 11.05      | • 상지대 김문기 총장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
|               | 12.03      |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
|               | 12.10      |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                             |
|               | 2015.02.12 | •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의 업무상 배임 등 고발                                  |
|               | 02.26      | •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
|               | 03.03      | • 국공립대 등록여치금 반환소송                                           |
|               | 03.12      | •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
|               | 03.30      | •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위헌소송                                 |
|               | 03.31      | •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불법유출·부실보관 검찰고발                         |
|               | 04.13      | • "일베충"이라 지칭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
|               | 04.21      | •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               | 05.06      | • 세월호 추모집회를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
|               | 05.13      | •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고발                              |
|               | 05.27      | •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                          |
|               | 06.02      | •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해소송                         |
|               | 06.16      | •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
|               | 06.23      |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

|                 |            |                                                           |
|-----------------|------------|-----------------------------------------------------------|
| <b>공익변론(7)</b>  | 2014.01.29 | • 미술작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학생3인 참여재판 변론                           |
|                 | 06.08      | •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비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시민 변론                    |
|                 | 06.26      | •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
|                 | 07.01      | • 박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공익변론        |
|                 | 07.08      | •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
|                 | 07.08      | • 해경의 세월호참사 구조 지연 관련 인터뷰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홍모씨 공익변론    |
|                 | 11.05      | • 정몽준 후보 아들의 '국민미개발언' 트윗했다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
| <b>행정심판(2)</b>  | 2014.10.27 | •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                 | 06.23      | •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 <b>감사청구(7)</b>  | 2014.03.20 | •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에 대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 청구       |
|                 | 05.14      | •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인 당국과 정부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                 | 07.14      |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                 | 09.03      | • 수원대·상지대의 불법과 비리를 방지·목인한 교육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                 | 09.18      | •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편법적으로 용인한 법무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                 | 12.23      | •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의 부실조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                 | 2015.05.19 | • 서울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
| <b>공익신고(19)</b> | 2014.01.21 | •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
|                 | 01.22      | • 면책채권 구입 및 불법 추심행위 진행한 국민행복기금 금감원 신고                     |
|                 | 03.27      | • 케이티의 기존 대리점에 대한 살생 행위 3차 공정위 신고                         |
|                 | 04.02      | • SKT 통신장에 사태 관련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
|                 | 05.27      | •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                 | 05.28      | • 오비맥주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06.17      | •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
|                 | 06.17      | • 동부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06.17      | • 서해중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06.17      | •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06.17      | • 휴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06.25      | • 알뜰폰 관련 SKT와 KT의 불법행위를 미래부에 2차 신고                        |
|                 | 07.02      | •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불공정 행위 신고                             |
|                 | 08.06      | • 씨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
|                 | 11.20      | •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
|                 | 2015.02.03 | •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
|                 | 04.02      | •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지 신고                          |
|                 | 06.18      | • 통신 3사의 부당행위·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
|                 | 06.23      | •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여성가족부 등에 신고                           |
| <b>진정·민원(2)</b> | 2014.06.08 | • KBS,MBC의 세월호 사건 관련 김홍경씨의 '해경구조소홀' 인터뷰 누락에 대해 방송위에 민원 제기 |
|                 | 12.03      | • 서울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우려 관련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책마련 요구하는 진정 접수         |

## 정책자료 2014. 1 ~ 2015. 6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 등 89건의 정책자료(이슈리포트, 입법의견서, 자료집, 보고서, 소책자, 카드뉴스 등)를 발표했습니다.

|                  |            |                                    |
|------------------|------------|------------------------------------|
| <b>이슈리포트(29)</b> | 2014.01.14 | •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
|                  | 04.09      | •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
|                  | 05.27      | •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
|                  | 05.28      | • 갑을개혁 운동 1년을 평가한다                 |
|                  | 06.22      | •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
|                  | 07.02      | •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
|                  | 07.06      | •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
|                  | 08.08      | •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이슈리포트  |
|                  | 08.19      | •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
|                  | 08.21      | • 청와대 감사 파견 현황 보고서                 |
|                  | 08.22      |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
|                  | 08.25      | •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
|                  | 09.03      |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
|                  | 09.18      | •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결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                  | 10.15      | • 에스콰이어 사례로 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
|                  | 10.16      | •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
|                  | 11.06      | •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
|                  | 11.11      | • 관피아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
|                  | 11.26      | •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
|                  | 2015.01.15 | •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
|                  | 03.12      | •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관련 10문 10답          |
|                  | 04.14      | •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
|                  | 06.01      | •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
|                  | 06.11      | • 2015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평가        |
|                  | 06.17      |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 쟁점과 평가의견          |
|                  | 06.18      | • 근로감독보고서1 - 최저임금법6조               |
|                  | 06.23      | • 2005~2015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
|                  | 06.25      | •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
|                  | 06.25      | •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

|                  |            |                                        |
|------------------|------------|----------------------------------------|
| <b>입법의견서(20)</b> | 2014.01.20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02.05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                  | 02.10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의견서                  |
|                  | 02.17      | •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
|                  | 02.20      | •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의견서              |
|                  | 03.06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05.20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                  | 05.28      | •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
|                  | 06.09      | •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07.22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12.04      | •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
|                  | 2015.02.23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                  | 02.23      | • 김영란법 정무위 대안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

|  |       |                                           |
|--|-------|-------------------------------------------|
|  | 02.23 |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
|  | 03.02 | • 세월호피해구제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
|  | 04.06 | • 해수부 입법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
|  | 04.21 |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06.08 | •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06.10 | •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06.25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                                         |
|----------------|------------|-----------------------------------------|
| <b>정책자료(7)</b> | 2014.04.21 | •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
|                | 09.28      | •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                | 10.30      |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
|                | 11.10      |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                | 11.25      |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
|                | 12.14      | •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분야 36개 입법 과제 |
|                | 2015.02.10 | • 「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

|                      |            |                                            |
|----------------------|------------|--------------------------------------------|
| <b>자료집 / 소책자(11)</b> | 2014.03.07 | • 참여연대 20차 정기총회 자료집                        |
|                      | 04.01      |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
|                      | 09.05      |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책자> 추석특별판 -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
|                      | 09.11      | •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
|                      | 11.18      | • <소책자> 국회를 시민 품으로                         |
|                      | 12.05      | • <소책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4              |
|                      | 12.15      | • <소책자>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활동 결과 보고서            |
|                      | 2015.03.07 | • 참여연대 21차 정기총회 자료집                        |
|                      | 03.16      |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
|                      | 04.22      | • 12가지 키워드로 보는 국회.선거제도 가이드북                |
|                      | 06.15      | • <팩트북>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                 |            |                                              |
|-----------------|------------|----------------------------------------------|
| <b>카드뉴스(22)</b> | 2015.03.05 | •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                              |
|                 | 03.10      | •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
|                 | 03.13      | •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상식                  |
|                 | 03.24      | •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일까요?                       |
|                 | 03.26      | •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                 | 04.01      | • 만우절 특집, 최고의 거짓말을 찾아라!                      |
|                 | 04.06      | • 박상욱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
|                 | 04.13      | • 세월호참사 1주기 -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
|                 | 04.15      | • 급식은 교육입니다                                  |
|                 | 04.20      | • 경찰 차벽 왜 위험 위법인가?                           |
|                 | 04.21      | • 공공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
|                 | 05.08      | • 홍준표, 당선 차례입니까?                             |
|                 | 05.14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꼭꼭 집어서 알아보기                |
|                 | 05.21      | • 공익제보자 소식 #1.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
|                 | 05.26      | • 공익제보자 소식 #2.감원외고 입시비리 제보자 박은선              |
|                 | 05.28      | • 공익제보자 소식 #3.동구마케팅 비리 제보자 안중훈               |
|                 | 06.02      | • 공익제보자 소식 #4.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
|                 | 06.02      | • 나, '삼성생명법'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싶다               |
|                 | 06.10      |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                 | 06.16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
|                 | 06.19      | • 우리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섰어                         |
|                 | 06.26      | • 공익제보자 소식 #5.부실시공 제보자 유명호                   |

## 공론화 활동 2014. 1 ~ 2015. 6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 분석과 의제 발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총 309회의 토론회, 언론기획, 간담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습니다.

|                           |            |                                               |
|---------------------------|------------|-----------------------------------------------|
| <b>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토론회(8)</b> | 2014.05.19 | • 고장난 나라와 세월호, 다시 국가를 묻는다                     |
|                           | 05.22      | • 세월호 참사와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심층 토론회 (공동)             |
|                           | 05.28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공동)            |
|                           | 06.10      | • 세월호와 지방선거 그리고 진보의 길                         |
|                           | 10.28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공동)               |
|                           | 12.02      | •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
|                           | 2015.04.06 | • 세월호 1주기 토론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어디까지 진행되었나"(공동) |
|                           | 04.13      | •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공동)    |
| <b>심포지엄(3)</b>            | 2014.06.26 | • 정당해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공동)                        |
|                           | 09.01      | • 참여연대 20년, 도전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모색                 |
|                           | 10.31      | • 사회복지위원회 20주년기념 "한국 복지국가운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 <b>토론회/좌담회 (71)</b>       | 2014.02.27 |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
|                           | 03.03      | • 무엇이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                           | 03.10      | • 박근혜정부 1년 검찰 평가 좌담회                          |
|                           | 03.12      |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
|                           | 03.14      | • 기초법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
|                           | 03.17      | • 룬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
|                           | 03.19      | • 한국 최후탄의 바레인 수출 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
|                           | 03.20      | • 상가임대차, 개혁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                           | 03.20      | •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
|                           | 03.21      | • "당신도 노인이 된다" 중앙대학교편                         |
|                           | 03.25      | • 유권자의 참여 배제하고 선거 치를 것인가?                     |
|                           | 04.22      | •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                           | 04.28      | •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 04.30      | • 6.4 지방선거 '좋은 정책' 종합토론회                      |
|                           | 04.30      | • 어떻게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인가? 진단과 대안                 |
|                           | 05.07      | •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
|                           | 05.09      | • 오염된 울산 미군기지에 국가 공원 조성 이대로 좋은가?              |
|                           | 05.12      | • 부산, 경제민주화 현안과 과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                           | 05.13      | • 6기 서울시장에 바란다 (공동)                           |
|                           | 06.16      | •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
|                           | 06.16      | • 한반도 화해협력과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
|                           | 06.24      | •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
|                           | 07.10      |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
|                           | 07.15      | • 대형마트 상생품목제도 여론 조사 발표와 입법 간담회                |
|                           | 07.15      | • 이상한 나라의 선거관계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
|                           | 07.17      | •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
|                           | 08.07      | • 투기자본 먹튀경영 및 슈퍼갑질·비정규직해고의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토론회     |
|                           | 08.19      | •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                           | 09.22      | •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
|                           | 09.23      | • 단말기유통법지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
|                           | 09.26      | • 삼성을 감시하다 토론회                                |
|                           | 09.26      | •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
|                           | 10.10      | • 판결비평: <백년전쟁> 방영 중징계 조치 '정당하다' 판결 좌담회        |
|                           | 10.24      | •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창립식 토론회        |
|                           | 11.03      | • 건설하도급 불공정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                  |

|            |       |                                           |
|------------|-------|-------------------------------------------|
|            | 11.05 | •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연세대학교 편       |
|            | 11.11 | •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전주대학교 편       |
|            | 11.13 | •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                     |
|            | 11.14 | • 참여사회연구소 공개 토론회 -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미래는 있는가   |
|            | 11.17 | • 사형제도 폐지와 그 대안                           |
|            | 11.19 | • 판결비평: 핵발전소에 인근주민 암발병 책임 인정한 첫 판결 좌담회    |
|            | 11.25 | •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
|            | 11.26 | • 국제 북한 인권 동향과 남북 인권협력                    |
|            | 11.27 | •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영남대학교 편       |
|            | 11.28 | •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토론회                       |
|            | 12.02 | •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종합토론회         |
|            | 12.11 | • 무상복지논쟁, 쟁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
|            | 12.15 | •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            | 12.18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            | 12.22 | •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
| 2015.01.27 |       | •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보육긴급좌담회                    |
|            | 01.28 |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
|            | 03.30 | •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개혁 토론회              |
|            | 04.01 | •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봐도 될까? 공무원연금과 청년 토론회 |
|            | 04.02 | •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            | 04.17 | •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                       |
|            | 04.22 | • 급식은 교육이다 - 학교급식법 개정 긴급토론회               |
|            | 05.06 | • 의료사고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
|            | 05.21 |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                      |
|            | 05.22 | • 룬스타 문제 토론회                              |
|            | 05.26 | •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 토론회                      |
|            | 06.02 | • 기초고용질서 확립인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인가?             |
|            | 06.04 |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7대 개선 촉구 토론회         |
|            | 06.04 | •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토론회                   |
|            | 06.08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조건                         |
|            | 06.08 | • 통신비 인하, 휴대폰 데이터 요금 확대를 위한 합동 토론회        |
|            | 06.11 | •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              |
|            | 06.23 | • 백지신택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            | 06.24 | • 제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
|            | 06.25 | •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            | 06.30 |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            |                                                  |
|---------------------|------------|--------------------------------------------------|
| <b>사례발표회/설명회(8)</b> | 2014.06.16 | • 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성에 관한 기사설명회 |
|                     | 07.31      | • 사회복지사를 위한 친절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설명회                |
|                     | 08.30      | •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
|                     | 09.23      | •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기사설명회            |
|                     | 11.21      | • 1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                     | 2015.03.24 | • 2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종합 발표회(키코)                        |
|                     | 05.13      | • 3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                     | 06.25      | •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

|                   |               |                                                                                                                                                                                                                                                                                                                                                                                                                                                      |
|-------------------|---------------|------------------------------------------------------------------------------------------------------------------------------------------------------------------------------------------------------------------------------------------------------------------------------------------------------------------------------------------------------------------------------------------------------------------------------------------------------|
| <b>언론기획 (219)</b> | 2014 - 201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정부 1년 공약평가] 4회, 한국일보</li> <li>• [경제민주화워치] 16회, 프레시안</li> <li>• [세월호 참사 두 달- 이것만은 바꾸자] 7회, 경향신문</li> <li>• [2014 평화상상] 6회, 프레시안</li> <li>• [2014 지방선거, 왜 생활임금인가] 6회, 오마이뉴스</li> <li>• [나는 세입자다-시즌2] 37회, 오마이뉴스</li> <li>• [아시아생각] 17회, 프레시안</li> <li>• [세월호 1년 진단- 무엇이 바뀌었나] 8회, 경향신문</li> <li>• [2015, 이제는 평화] 7회, 프레시안</li> <li>• [소소권, 적지만 소중한 권리] 21회, 경향신문</li> <li>• [시민정치시평] 90회, 프레시안</li> </ul> |
|-------------------|---------------|------------------------------------------------------------------------------------------------------------------------------------------------------------------------------------------------------------------------------------------------------------------------------------------------------------------------------------------------------------------------------------------------------------------------------------------------------|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 기회의 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과 가까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대결의 평행선을 만들어내는 이념적 정치적 평가르기, 공존을 거부하는 적대와 혐오,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멍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 시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제약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평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실한 동반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굳세게,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 팔팔한 스무살 참여연대의 8가지 혁신 키워드, 8가지 중장기 의제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 발췌

### 8가지 혁신 키워드

**소통 능력** :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책입안자를 상대로 작성하던 딱딱하고 복잡한 컨텐츠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SNS와 모바일 환경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참여연대 대안미디어를 개발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현장성** :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현장과 당사자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성** :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촘촘히 포획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전문가층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시민 리더십** :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개발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변화의 공간** : 참여연대 건물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사옥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글로벌 참여연대** : 민주주의/평화/개발협력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나눔과 협력의 재정** :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체** : 참여연대를 지난 20년간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세대를 잇는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상근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 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군,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 공동대표) 구성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의 20년 활동을 평가하고 비전의 재정립을 돕기 위해 산하에 평가비전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전 공동대표)를 별도로 운영해왔습니다. 평가비전위원회는 11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회원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2014년 9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된 성찰과비전보고서를 간추린 것입니다.

### 8대 중장기 의제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의 기본입니다.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기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권력감시운동은 공공정책과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지켜내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사회권 보장** :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행동수단의 확대** :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으로서 소비자로서 납세자로서

시민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참여수단과 권리구제 수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 :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의와 패권적 적대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영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 시민사회 단체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한편, 대립의 평행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이견그룹과의 진정성 있는 토론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① 정치적 독립 원칙

#### 어떤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시민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감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을 감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몇몇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감시 단체인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시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눈으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 참여연대 임원 및 상근자의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중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
- 주요 임원 및 상근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할 수 없다

#### 참여연대 정관 41조, 내규 2-3-1 제5조

- 정관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 임원에 관한 내규 제3조 정관 제41조상의 주요 임원은 집행위원을 말한다. 단, 집행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에도 주요 당직 및 공직에 취임하거나 입후보 할 경우 사전에 사임해야 한다.

### ② 재정 자립 원칙

#### 참여연대의 자랑 가운데 하나이며, 지칠줄 모르는 활동의 원천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1998년 이후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해 '회비 100% 재정'을 목표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회원과 시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제껏 고집스레 지켜온 재정 원칙을 앞으로도 고수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재정에 관한 내규 제3조 (재정원칙)

- [회비우선의 원칙]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이다.
- [정부지원금 거부 원칙]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연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비의존 원칙] 참여연대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은 받지 않는다.

### 2014년 참여연대 살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 전체 수입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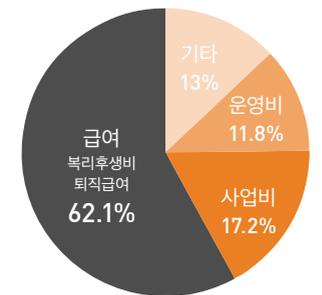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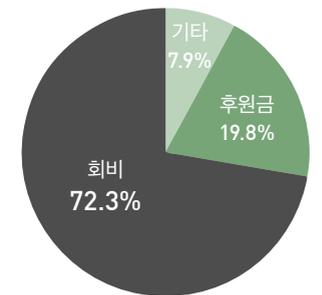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2014년도 회비 수입은 16억 1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48% 증가했으며, 후원금은 4억 4천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을 제외한 사업수입은 22% 가량 감소하여, 전체 수입이 전년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2014년 총지출은 2013년과 비교하여 약 4억 8천 5백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근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4% 증가했으며, 참여연대 사업비 지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그 외 시민의놀이터 사업을 위한 공간개선 비용이 운영비 등으로 약 2억 6천 2백만 원이 지출되어, 2014년 당기순손실이 약 2억 2천 3백만 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지출항목 중 퇴직급여는 1억 5천 2백만 원이나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5천 5백만 원이며, 9천 7백만 원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된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4천 1백만 원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 2014년 수입 지출 (단위 : 원)

|           |                      |
|-----------|----------------------|
| <b>수입</b> | <b>2,234,598,340</b> |
| 회비        | 1,616,306,806        |
| 후원금       | 442,326,835          |
| 사업수입      | 144,955,364          |
| 카페사업수입    | 7,279,999            |
| 이자수익+잡이익  | 23,729,336           |
| <b>지출</b> | <b>2,458,271,479</b> |
| 급여+복리후생비  | 1,275,679,134        |
| 퇴직급여      | 152,136,226          |
| 사업비       | 422,330,270          |
| 운영비       | 290,853,552          |
| 지급수수료     | 97,761,587           |
| 건물관리+사무용품 | 85,060,840           |
| 부설기관회비    | 38,699,060           |
| 카페통인재료비   | 3,859,284            |
| 감가상각비     | 41,235,760           |
| 이자비용+잡손실  | 27,121,181           |
| 기부금지출     | 23,490,000           |
| 법인세       | 44,585               |
| 당기순이익     | -223,673,139         |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경제금융센터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2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국제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조직운영분야**

- 시민참여팀 723-4251 회원행사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담당합니다
- 운영기획팀 723-5304 사무처 재정과 후원·운영을 담당합니다
- 정책기획팀 725-7105 참여연대 정책을 기획·조율·관리합니다
- 미디어홍보팀 725-7105 참여연대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합니다

**부설기관**

-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 참여사회연구소 764-9581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대표전화 02-723-5300  
 팩스02-6919-2004  
 ARS 060-7001-060 한통화 5천원  
 회원가입 02-723-4251 we@pspd.org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4-2015**

발행일 2015.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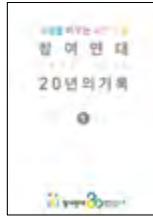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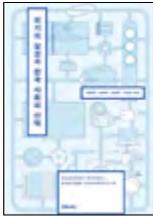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도서출판 나눔의집 201호  
 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 편집팀, 참여연대 224호  
 반년간 <시민과 세계> 참여사회연구소, 이매진 26호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조홍식·장지연 엮음 | 이매진 | 17,000원 | 2014-07-04

**감시자를 감시한다** 고장난 나라의 감시자 참여연대를 말한다  
 참여연대 기획 | 조대엽·박영선 엮음 | 이매진 | 25,000원 | 2014-09-05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국시민운동 20장면  
 참여연대 기획 | 차병직 변호사(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지음 | 창비 | 15,000원 | 2014-09-10

**반성된 미래** 무한 경쟁 시대 이후의 한국사회  
 참여연대 기획 | 김균 엮음 | 후마니타스 | 20,000원 | 2014-09-15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사회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기획  
 조돈문 이병천 송원근 이창곤 엮음 | 후마니타스 | 35,000원 | 2014-11-03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1997년 체제와 한국 사회의 변화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이병천/신진욱 엮음 | 후마니타스 | 28,000원 | 2014-12-31

**참여연대 20년의 기록** (1994-2014) 참여연대 20년 활동 백서(전 3권)  
 참여연대 기획 |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엮음 | 참여연대 | 100,000원 | 2014-12-31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 - 판결비평 2005~201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북콤마 | 22,000원 | 2015-02-13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 02-723-4251